성도의벗 II 1993

표지 설명:
1893년—백년 전—에 헌납된 솔트레이크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가 이번 호 *성도의 벗*에 실린다. *앞 표지*: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뒷 표지*:말일성도 교회 고문서 보관소에 보관중인, 사실에 근거한 사진; 웰든 앤더슨이 촬영한 성전 사진.

어린이란 표지 설명:
벨리즈의 벨리즈 시에 살고 있는 지니아 문요스는 일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14쪽 "친구 사귀기" 참조
표지 사진 촬영:마빈 케이 가드너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솔트레이크 성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2

모든 창문, 뾰족탑 리차드 나이첼 홀잡펄 8

아빌라 형제의 신앙 호세 오헤다 26

성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프란세스 더블류 핫슨 32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제이 엠 토드 34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러렌 곤트 44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귀기울여 듣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자매애를 강화시킴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어린이란

헤롤드 비 리 켈린 릭스 아담즈 50

성전은 경건한 장소입니다 케서린 에이 파이필드 52

함께 나누는 시간 : 경고! 주디 에드워즈 56

꾸며낸 이야기 : 스미스 형제의 "아멘" 브래드 윌콕스 58

심심풀이 61

친구 사귀기 : 벨리즈 벨리즈 시의 지니아 문요스 마빈 케이 가드너 62

1993년 11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루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32호, 제30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3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한 상 익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 이 세 용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1. 번역 승인－10/91
November 1993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3991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s;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훌륭한 본보기

이 교회에 속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계시는 말일성도들의 생각과 느낌을 하나로 묶어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가족이 특히 감명을 받은 기사는 1992년 3월호에 실린 "세실 퍼루 : 인도에서의 사랑과 우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봉사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게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얄라 라미레스
가비디아 와드
산 미구엘 엘살바도르 스테이크

이 험한 시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가끔 교회 잡지를 읽기 싫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레 리아호나*(사모아어 판)를 읽는 습관을 길러 왔으며, 지금은 매우 즐겨 읽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와 그 밖에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에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나이 어린 저로서는 그분들의 권고가 이 험한 시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 관한 기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좋아합니다.

모든 면에서 *올레 리아호나*는 제 생활에 매우 귀중한 벗입니다.

수이사미 루아투아
알레마 와드
뉴질랜드 마누레바 오클랜드 스테이크

기쁨과 감사

노르드스티아르난(스웨덴어 판)에 대해 커다란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훌륭한 잡지라고 생각하며, 매월마다 거기에 실린 기사와 아름다운 그림들과 천연색 사진들, 어린이 난 및 표지까지 빠짐없이 봅니다.

저는 *노르드스티아르난*을 마치 계속 쓰여져 매월 저에게 전달되는 경전처럼 여깁니다. 저는 이 잡지를 1951년본부터 1973년본까지 함께 묶어 놓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특별한 화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또한 선교 사업을 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마다 *노르드스티아르난*을 몇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나 그 밖에 여행자들에게 줍니다.

훌륭한 잡지를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나르 닐슨
젠케핑 와드
스웨덴 에테보리 스테이크

즐거운 독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읽는 것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저는 대관장단 메시지와 기타 성도들의 간증을 읽음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신앙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이 잡지는 몰몬경 및 기타 경전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완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다 포몰레스
푸에르토리코 과야마

LORD
LORD

솔트레이크 성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셨으며,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와 가장 거룩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속죄의 피로써 저희 죄가 더 이상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기를 간구하오며, 저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러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에서 저희의 기도가 들리게 되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가 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되 백 배로 부어 주시며, 저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목적으로 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그리하옵소서."[1]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1893년 4월 6일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하면서 위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몇 줄의 훌륭한 헌납 기도의 서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당시 예언자께서는 길고도 아름다운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신 이 몇 마디 말씀 속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 기도를 드린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성전 의식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쳤다.

별모양, 달모양 및 구름 모양의 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건물의 많은 돌들은 그것을 세공하는 사람들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를 인정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기도로써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 밖에도 우리들 각자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던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아버지의 독생자를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드럽 대관장님은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이 헌납 기도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행사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847년 개척자들이 도착한 지 4일 후에 성전 부지를 표시하는 말뚝을 박은 사람이 바로 윌포드 우드럽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때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곳에 우리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드럽 형제님은 40년 동안 놀라운 주님의 집이 건축되는 장관을 직접 지켜 보셨습니다. 성전이 헌납될 당시 그분의 연세는 86세였습니다. 그분은 이 일이 있기 4년 전에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받으셨고, 솔트레이크 성전보다 먼저 완성된 커틀랜드 성전과 나부 성전, 세인트 조지 성전, 로간 성전 및 맨타이 성전에 관해 알고 계셨으며, 세인트 조지 성전이 헌납된 1877년부터 1884년까지 세인트 조지 성전장으로 봉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목적에 관해서 그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중요성, 특히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가족이 족장 제도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야 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큰 성전으로 서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에서 우드럽 대관장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 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모든 성전이 똑같고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미국 서부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성전인 동시에 교회 전체로서는 네번째로 완성되어 헌납되었지만,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성전이고 1세기 동안 교회 책자에 부단히 소개되어 왔으며, 전세계의 말일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솔트레이크 성전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제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밖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는 데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표준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미의 창조물이고—
힘의 상징이며
평화의 항구이며
예배드리는 성소이며
교훈을 받는 학교이며
계시의 장소이며
진리의 샘이며
성약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거의 매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당한 모든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과 비교할 만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 누가 솔트레이크 성전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부정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전통적인 건축 양식도 따르지 않았으며, 40여년 간에 걸쳐서 건축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부적인 구조가 많이 변경되기도 했을 테지만, 건물 전체로서는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땅에 굳게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도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면으로부터 여섯 개의 뾰족탑이 솟아 있으며, 각 뾰족탑 둘레에는 3단으로 된 작은 뾰족탑들이 네 개씩 있습니다.

건물이 외곽 선으로 인해 각 탑들은 마치 땅에서부터 서로 떨어져서 세워진 듯 하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며 견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탑 하나하나는 성곽과 같은 톱니 모양의 석벽으로 연결됩니다. 치아 모양의 화강암과 관석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해줍니다.

다양한 창문 모습 또한 흥미롭습니다. 어떤 것들은 둥글고 어떤 것은 타원형이며, 꼭대기가 아치형으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수직으로 좁게 만들어진 창문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건물 외곽선들의 조형미와 어느 각도에서든지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구석구석 조각되어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전문적인 건축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기술적인 훈련도 거의 받지 못한 당시의 건축가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들은 유리와 몇 가지 금속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료를 이 지역에서 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위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강암으로 된 성전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고하고 탄탄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돌을 다듬고 쌓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기술을 영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개종한 후 유타로 왔는데, 모두가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한 세기가 지난 이 성전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고 쌓는 일을 감독했던 제임스 모이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돌은 다듬는 데에만 며칠에서 수 주일까지 걸렸다… 성전 건물에 쓰여진 많은 돌들의 모서리 부분을 깃털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모양으로 다듬어야 했기 때문에 건물의 많은 돌들을 다듬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다. 아마 맨 아래층에 있는 원형의 대형 창문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석영과 장석 및 운모 조각들은 조금만 진동을 해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화강암은 너무 쉽게 깨지기 일쑤였다. 따라서 깃털처럼 얇은 모서리 부분은 가장 나중에 다듬었다. 망치질을 단 한번이라도 잘못하거나 너무 세게 때릴 경우 그때까지 들인 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수주일을 헛고생만 한 결과가 되고 만다."[2] 이 성스럽고 거대한 화강암 건축물 속에는 힘과 섬세함과 견고한 느낌이 배어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템플 스퀘어로 알려진 곳의 주위로 담이 쌓아졌습니다. 오늘날 저 담장 밖은 교통이 혼잡하고 시끄럽지만, 담장 안에는 화평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전 뜰은 예술적으로 꾸며진 보도와 넓은 잔디밭, 위풍도 당당한 모습을 하고 서 있는 나무들과 오색 찬란한 꽃들로 인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작은 세상을 연출합니다. 이제는 수백만에 달하는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들도 그 같은 말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더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란과 분주함을 뒤로한 채, 주님의 집 안에는 평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자신이 영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며, 성스러운 것들로 인해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봉사하는 성소입니다. 이 성스러운 집에서 수행되고 있는 의식들은 대부분 죽음의 장막을 넘어가신 분들을 위해 대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치른 희생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저 세상 분들에게서 대가를 기대하

성전은 성약의 집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실천하겠다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약속을 한다.

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봉사이며, 본질적으로 비이기적인 봉사입니다.

이 성스러운 전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온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계획의 개요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전세에서부터 현세를 통해 내세로 연결되는 그 길고도 파란 만장한 인간의 영원한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진리들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말로 가르쳐집니다.

이곳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성전이 헌납된 이래, 이곳에서는 거의 매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모임을 가져 왔습니다. 이곳에서 지식과 이해력을 밝혀 달라고 간구드리는 진지한 기도를 드리며, 이 성스러운 경내에서 절제되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는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곳에서 영원한 신권의 가장 높은 권능을 부여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 협의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1978년 6월 어느 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그 거룩한 방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문제를 놓고 주님의 지시를 간구하실 때, 저도 그 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합당한 남자에게 신권을 받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언젠가 간증했듯이 그때 계시의 영을 느꼈는데 그 계시로부터 나온 열매는 전세계에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미롭고도 훌륭한 것이었음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은 또한 개인적으로 영감과 계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계시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전 안에 있을 때나 그 후에 자신들이 따라야 할 방향 제시가 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성전은 영원한 진리의 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4:14). 주님은 위와 같이 성스러운 본질과 영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벽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은 성약의 집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실천하겠다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약속을 하며, 모든 참된 종교의 반석이 되는 원리에 따라 살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동쪽 벽에는 "주님께 거룩함—주님의 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처음 구절은 전능하신 분을 인정함을 선언하고 그분 앞에 거룩함과 존경을 서약하는 말이고, 두번째 구절은 주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지어져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께 바쳐진 주님의 집입니다.

이 거룩한 집에서 저는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곳에서 거룩한 신권의 권능에 의해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고 세월도 해칠 수 없는 결혼을 했으며, 이 전이 세워진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이곳에 들어가 언제나 들어올 때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이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속주의 성스러운 사랑을 느끼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전들은 그 겉모습은 다소 다를지라도 주는 축복은 모두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솔트레이크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이 정확히 백 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 헌납되었기 때문입

니다. 이 성전은 다른 어떤 성전보다도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과 시설로 볼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은 어떤 건물보다 큽니다.

이사야의 다음 말씀이 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이사야 2:2~3)

주님의 거룩한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전이 세워져 지금까지 서 왔듯이 다가올 복천년 동안에도 서 있어서 살아 있거나 죽은 아버지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 문이 열려 있어 그 안에서 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2. 솔트레이크 성전은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3. 다른 모든 주님의 성전과 아울러, 솔트레이크 성전은 미의 창조물이고, 힘의 상징이며, 평화의 항구이며, 예배드리는 성소이고, 교훈을 받는 학교이며, 계시의 장소이고, 진리의 샘이요, 성약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

1. 윌포드 우드럽, *데져렛 이브닝 뉴스*, 1893년 4월 6일, 5쪽에서 인용.
2. 고든 비 힝클리, *제임스 헨리 모일리*(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51년) 80쪽.

모든 창문, 모든 뾰족탑이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이 착공 40년 만에
헌납됨으로써 마침내 2천 6백 여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정면도는 성전 건축가
트루만 오 엔젤이
1854년에 그렸다.

리차드 나이첼 홀잡펄

"발을 헝겊으로 동여맨 채 꽁꽁 언 진흙길을 걸어갔다. 나는 아내의 치마로 만든 얇은 격자 무늬 바지와 역시 얇은 옥양목 와이샤쓰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내가 걸친 의상이라고는 그게 전부였다. 밖에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늘 그 차림이었다… 나만 가난한게 아니었다… 나와 같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1853년 2월 14일, 살을 에는 듯 추운 날씨 속에서 솔트레이크 성전 기공식에 참석했던 어느 말일성도는 기록했다. 그는 그날 아침 열 한 시에 열릴 예정인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그곳에 도착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과연 그 무엇 때문에 그는 발을 적시지 않고 집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템플 블럭으로 갔을까? 당시 시온 산에 도착한 지 5년도 채 안되는 시기에 과연 성전은 굶주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꽁꽁 얼어붙은 진흙땅을 딛고 서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뾰족탑이 눈앞에 훤하게 그려지는 듯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첫번째 개념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집합" 하는 이유 즉, "바빌론"에서 떠나 오는 이유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서라고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유도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게] 하는 데 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1쪽) 이것은 바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이사야 2:3)라고 한 고대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요셉 스미스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1853년 2월 14일, 솔트레이크 성전 기공식에서 성명 미상의 한 개척자 사진가가 촬영한 것이다.

두번째 개념은 충실한 성도는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38:32)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축복은 성약을 맺는 의식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으로, 이 축복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이게 된다. 영적인 권세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으며 오로지 성약을 통해 임하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84:19~22 참조)

성도들은 세번째 개념 즉 주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할만한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신앙 강화* 제6장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도들은 나부를 떠날 때 성전에 대한 개념도 함께 마음속에 담아 가지고 떠났다. 1847년,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장장 2,400 킬로미터의 고된 여행을 마친 뒤 4일만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시티 크리크의 두 분기점 사이를 걷다가 수행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윌포드 우드럽이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땅에 말뚝을 박았다. 관례대로 그 지점은 완성된 성전의 중심 부분이 되었다.

1853년 2월, 브리감 영은 혹한의 날씨에 쇼올과 외투 등으로 몸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개척자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계시나 시현에 대해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5년 전 7월 이곳에서 영의 눈으로 성전을 보았다는 사실은 이야기해도 좋을 듯 합니다 … 저는 성전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하는지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지어야 할 형태가 제 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땅을 한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서 시현을 통해 성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실제로 제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의 말에 따르면 영 대관장의 말씀은 "약 30분간에 걸친 가장 감명깊은 말씀"이었으며 "무수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가장 뒤에 선 사람까지도 또렷하게 들렸다"고 한다.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브리감 영 대관장은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구가 지금과 같은 형태 지금과 같은 목적으로 창조된 이래, 인류사의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흥미있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행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예언자들로 하여금 설파하고 기록하게 했던 행사를 갖는 이곳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특권임을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히버 시 킴볼이 "곡괭이로" 언 땅을 팠으며… "영 대관장이 첫번째로 잔디를 떴다." 영 대관장이 모임을 끝내며 성도들의 큰 축복을 기원하자 모든 회중들은 "아멘!" 하고 화답했다. 그런 다음 회중들은 흙을 조금이라도 파내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로 몰려갔다. 약 "150명 가량의 인부들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그 행사에 참석했던 로렌조 브라운은 기록했다.

2개월 후인 4월 6일, 수요일, 교회 회원들은 정초식을 위해 다시 한 번 템플 블럭에 모였다. "쾌청한 날씨"였으며 "성도들이나 천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날"이었다고 *데저렛 뉴스*에 기록되어 있다.

발을 형겊으로 동여맨 그 가난에 찌든 이주자가 그 회중 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렌조 브라운은 그곳에서 악단의 연주와 군인들의 행진과 합창단의 노래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군중이 너무 많아 보고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그는 덤덤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헌납 기도를 하는 동안에 군중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라앉아 로렌조 브라운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다음과 같은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성전의 남동쪽 초석을 바치나이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또한 주님의 집이 '*산 꼭대기*'에 세워져야 한다고 한 거룩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저희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 날까지 이 돌이 평화 가운데 놓여 있게 하옵소서."

다음날 팔리 피 프랫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요셉 스미스와 그를 동반했던 영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허락을 받았거나 그렇게 바쁘지 않은 다른 세상의 영들이 그 초석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들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의식이 끝난 직후 몇 년 전 자신이 시현으로 보았던 성전의 윤곽을 석판 위에 그렸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동쪽에는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를 상징하는 탑 세 개를 세울 것이며 서쪽에도 관리 감독과 그의 두 보좌를 상징하는 유사한 모양의 탑 세 개를 세울 것입니다. 동쪽의 탑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상징하고 서쪽의 탑들은 아론 신권을 상징할 것입니다."

1년 반 후인 1854년 8월 17일자 *데저렛 뉴스*에 성전을 묘사한 기사가 실렸다. 비몰몬 신문들은 다음 수년간 이 기사를 토대로 성전에 관한 자신들의 기사를 실었다.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그 기사를 반복해서 싣는가 하면 1857년에는 한 예술가가 *데저렛 뉴스* 기사의 설명을 기초로 만든 대형 목판화도 함께 실었다. 그 일을 성도들이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도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기사들은 성도들의 치러야 할 엄청난 노고에 대해 강조하였다.

신앙의 기초

그 뒤로 이어지는 40년간의 영웅담을 읽어 보면 시련도 무척 많았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새 시온으로 모인 성도들은 촌락과 부락을 세우고 관개 시설 및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성전에 대한 이상과 언젠가는 그 성전의 제단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물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성약을 맺었던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죽은 가족들이 승영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이 성약을 맺게 했던 열망으로 성도들은 쉼없이 부지런하게 일을 했으며 '대분지'의 물질적으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영적

인 현실을 제공하였다.

교회 건축사인 트루먼 엔젤은 기술적인 한계를 깨닫고 브리감 영 대관장의 시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1856년 7월 "건축 선교사"로서 영국에 보내졌다. 1857년 5월 귀환할 때까지, 그가 없는 동안 성전 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후에 엔젤 형제는 이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제 자신이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 대관장님]과 형제님들이 저와 같이 한낱 초라한 티끌 속의 벌레 같은 자를 교회 건축사로 지지해 주시는 한 저는 그분들을 섬기고 제 자신이 욕되지 않도록 분골 쇄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엔젤 형제가 귀환한 지 불과 두 달 후에 빅 커튼우드 캐년에 모인 성도들은 미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 불만을 갖고 사임한 연방 관리들의 왜곡된 보고에 성급히 반응을 보여, 질서를 회복하고 브리감 영 대신에 새로운 주지사를 강제로 취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무장 군인 2,500 여명을 급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연 전술로 인해 군대는 행군 속도가 늦어져 와이오밍 주 포트브릿저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봄이 되자 군사 행동의 위협이 재개되었다. 1858년 3월 말경, 브리감 영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와 그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3만 여명의 성도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목전에 둔 성도들의 슬픔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전의 모든 기초를 흙으로 덮어 그 일대가 어제 막 쟁기로 간 들판으로 보이게 했다. 일단의 성전 공사 관련 노무자들은 잘라 놓은 돌을 감추었다.

다행히 미 연방군과의 대결 상태는 외교적으로 해결되었다. 성도들은 "사면"을 받는 데 동의하고 군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서쪽으로 56킬로미터 지점에 진지를 구축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만일 군이 약속을 어기고 솔트레이크시티를 점령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헌납된 땅을 더럽히려고 하면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불살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군은 협정을 준수했으며, 2개월 후인 1858년 7월에 성도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편하기 그지없는 휴전 상태로 인해 성전 건축 작업은 다음 2년 동안 재개되지 못하다가 1860년 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이 기초의 흙을 거둬 내도록 지시하였다. 그 기초를 덮은 흙을 거둬 내는 데에만 2년이 더 소요되었다. 그런데 두번째로 일어난 매우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성전 건축 작업이 타격을 입는 듯했다. 기초 벽에서 매우 크게 갈라진 금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 기초로는 영 대관장이 시현을 통해 본 성전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초 하단부를 파서 처음 깔아 놓은 돌들을 치우고 회반죽 없이도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다듬은 양질의 돌로 대체하기 위한 힘든 작업을 시작했다. 1862년이 되어서야 마지막 돌이 제거되었다. 흙으로 기초를 덮은 지 9년, 성전 부지로 선정한 지 20년만인 1867년, 드디어 성전 벽이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거대한 화강암 벽돌

처음에는 성전의 벽을 햇볕에 말려 만든 찰흙 벽돌과 사암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초석에서 갈라진 금이 발견됨에 따라 영 대관장은 화강암을 주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돌이 있는 곳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남방으로 약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리틀 커튼우드 캐년이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소년 시절에 리틀 커튼우드 캐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장정들이 "성전으로 달라갈… 거대한 화강암 벽돌"을 만드는 것을 보았던 것에 대해 회고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소떼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던 모습과, 골짜기 길을 따라 가던 중에 이따금 막 다듬은 벽돌들이 마차에서 미끄러 떨어져 없어지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맨 처음 1,134킬로그램에서 2,540킬로그램에 달하는 돌들이 리틀 커튼우드 캐년의 채석장에서부터 소떼와

주님의 산 사진 촬영 윌든 앤더슨

새로운 영화 *주님의 산*의 한 장면.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에 관해 그리고 있다. *위*:초석으로 사용할 사암을 채취하기 위해 협곡을 파고 있다. *아래의 왼쪽*:1858년, 성전 부지를 감추기 위해 기초를 덮고 있다. *아래와 오른쪽*:브리감 영 대관장으로 분장한 배우가 노출된 사암에서 발견한 균열을 가리키고 있다. 후에 사암은 화강암으로 교체되었다.

마차로 운반되었다. 종종 인부들이 채석장에서 성전 부지까지 거대한 벽돌 하나를 운반하는 데만도 나흘이 족히 걸리기도 했다. 애니 웰즈 캐넌은 "두 쌍의 황소에 거대한 돌을 실어 길을 따라 운반해 가던 광경을 회고"하며 "우리는 모두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그 소떼가 지나가는 동안 서서 지켜 보곤 했다."고 말했다. 다소 작은 돌은 마차 위에 실었지만 그보다 큰 돌은 마차에 매달아 끌고 갔다. 돌을 운반하는 도중에 부서진 마차만도 부지기수였으며 여름철 동안에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길 여기 저기에 낡은 마차들이 어지럽게 나뒹굴어 있었다.

채석장에서 일하던 일부 인부들은 교회 공공 사업부를 통해 생활 지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운데 시간을 바쳤다. 덴마크에서 이주해 왔던 존 닐슨은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템플 스퀘어에서 성전 벽에 쓸 바위를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달마다 1달러씩을 내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밖에도 리틀 커튼우드 캐년 입구의 바위 채석장에서도 얼마간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 숙박비를 직접 지불하고 제 침구류를 스스로 마련했으며 노동도 바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했던 성도들 가운데

영국에서 온 존 로우 모이얼이라는 유능한 석수가 있었다. 모이얼 형제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하루만 유타주 앨핀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월요일 아침이면 집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걸어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금요일에 돌아왔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모이얼 형제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는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나무로 직접 의족을 만들어 통증을 견딜만 할 때까지 무거운 걸음으로 자신의 농장 주위를 걸어 다녔다. 결국 그는 솔트레이크시티까지 32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 돌아가 성전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의 이야기에 의하면 존 모이얼은 "성전의 동쪽 벽면의 골조를 타고 올라가 '주님께 거룩함'이란 글자를 새겨 성전 건물에 기부했다."고 한다.

성전 건축 공사는 1868년 말경에 다시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다. 서부와 동부를 처음으로 잇는 대륙 횡단 철도 가설이 우선적으로 착수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연에도 불구하고 애쓴 보람이 있어서 1873년에 간선에 지선을 설치함으로써 채석장과 성전 부지 사이에 철로가 놓이게 되었다. 이 철도를 통해 거대한 돌덩이들을 증기 기관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1876년에 인부들은 벽에 돌을 쌓을 때 사용하는 데릭 기중기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성전 부지에 "이동식 소형 [증기] 기관"을 설치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돌아가시기 1년 여 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학 중이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보냈다. "내가 아는 한 주님에게 바치기 위한 성전 건축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금 증기 기관의 도움으로 바위 덩어리를 쌓고 있다. 이 증기 기관으로 인한 공사의 속도와 수월성에 우리는 크게 고무되어 있단다."

긴박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예감과 관련된 긴박감에 쫓겨 일찌기 성전 사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세인트조지의 성전 건축은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공사였지만 땅을 성전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브리감 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실례였다. 세인트조지 성전 건축은 트루먼 오 엔젤이 담당하였으며, 완공된 세인트조지 성전의 규모는 나부 성전과 유사했다. 영 대관장은 1877년 1월 1일, 조촐한 헌납식을 갖은 뒤 돌아오는 길에

찰즈 더블류 카딘가 사진 촬영한 역사적인 사진들, 유타주 역사 회화 제공

화강암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동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채석장(맞은편 쪽)에서 다듬어진 다음 소가 끄는 우마차로 템플 스퀘어 (*위*)까지 운반되었다. 그런

다음 숙련된 기술자들이 시방서에 맞추어 다시 다듬었다. 이 작업의 일부 과정이 이 역사적인 사진들과 영화 *주님의 산*에 묘사되어 있다.

유타주 맨타이에 들러 4월 25일자로 또 하나의 성전 부지를 헌납하였다. 그는 3주 내에 유타주 로간에 또 성전 부지를 헌납하였다.

그로부터 몇 주 후(작고하기 3개월 전이었다) 영 대관장은 하와이 선교부장인 윌리엄 이 팩 부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올해는 교회 역사상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해입니다… 6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한 개의 성전이 완공, 헌납되었으며 두 곳의 다른 성전 부지가 우리 주 하나님에게 헌납되어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또 한 개의 성전(이 시에 있습니다.) 공사가 막상 시작되고 난 뒤에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열정과 원기를 가지고 힘차게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세인트조지 성전의 완공으로 인해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거대한 성전"을 완공하고자 하는 소망과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아내인 루시 비 영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병자와 고통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성전을 찾았는지 모른다. 영 자매는 그 고통받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기 위해 즉시 부름받기를 원했다."고 한 교회 공식 간행물에서는 밝히고 있다. 수십 년간을 한번도 걷

지 못했던 한 자매는 "성전에 왔다가 그 날의 의식을 받는 가운데 영 자매의 활기에 찬 신앙심을 느꼈으며 자신이 겪고 있던 고통이 말끔히 치유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성도들은 성경상의 예언을 성취시키겠다는 결의와 아울러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 솔트레이크 성전을 완공시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역경을 무릅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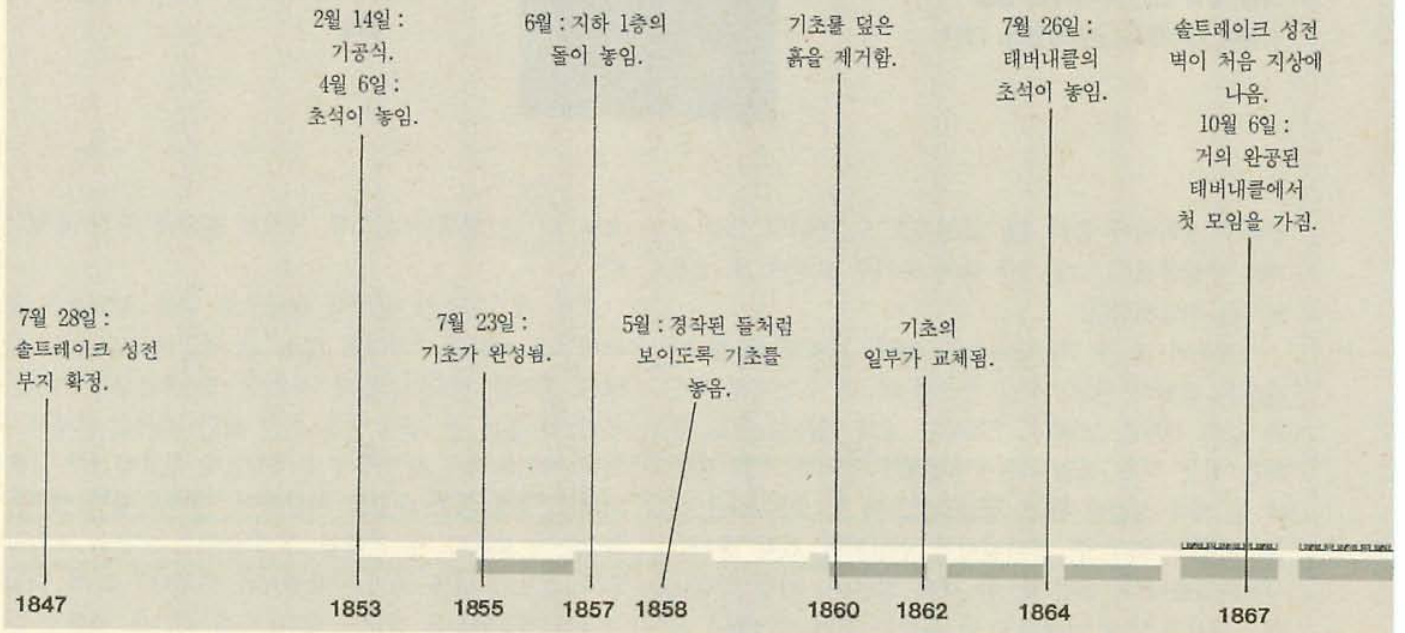
브리감 영 대관장의 사망 당시, 성전 벽의 높이는 약 12미터 가량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당시, 성전 공사는 또 한 번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도들에게 복수 결혼을 중지하라는 정부측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일어난 연방 정부와 교회 사이의 법적인 논쟁에서 말일성도 성전이 볼모가 되고 만 것이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직접적인 충돌만은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대관장인 존 테일러 대관장은 연방 보안관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다가 1887년에 사망하였다. 제4대 대관장인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성전을 강탈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연방 정부의 교회 몰수 재산 관리인과 접촉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임무는 80세의 예언자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난제였다. 1888년까지 로간과 맨타이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 말일성도들은 성전 성약의 축복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후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솔트레이크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5백 불을 기부하겠습니다. 주님도 이 성전의 완공을 바라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충분한 재원을 모아 주시기를 형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윌포드 우드럽이 교회 대관장이 된 다음 해에 성전

46년의 일정표 : 솔트레이크 성전의 부지 확정에서 헌납까지

19세기에 소수의 말일성도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짓는 데 요구되었던 커다란 노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일정표를 공부해 볼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템플 스퀘어에 역시 위치에 있는 태버내클과 어셈블리 홀을 짓는 데 걸린 시간 뿐 아니라 유타주 내의 다른 성전들을 짓는 데 걸린 시간에도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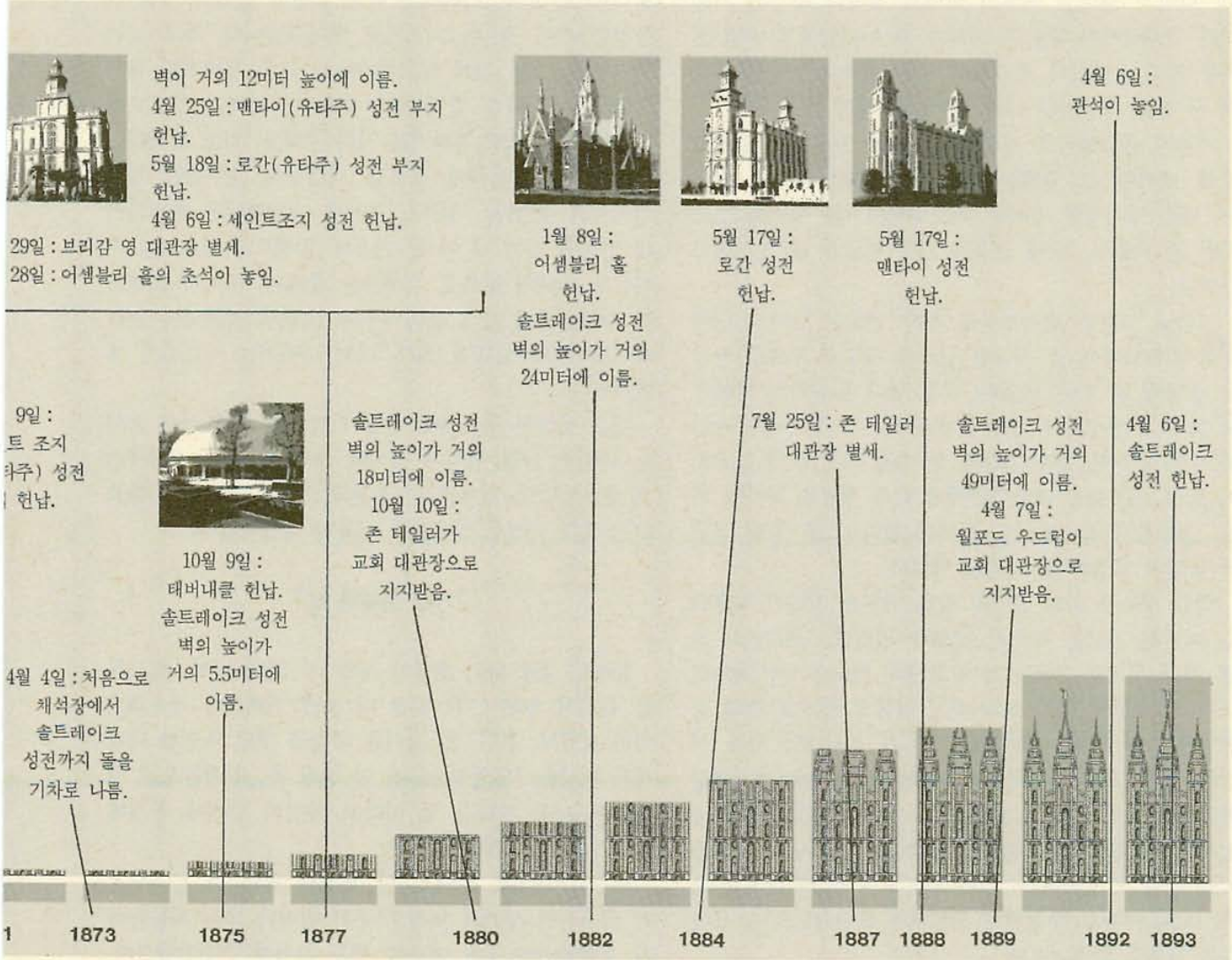
스톡 몽타주 그림

벽은 48미터까지 쌓아졌으며, 우드럽 대관장은 성전에 필요한 난방, 전력, 기타 시설물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은 수그러질 줄 몰랐다.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우드럽 대관장은 1890년 9월에 공식 선언문 1을 공표하고 10월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이 지지함에 따라 성전에 대한 위협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우드럽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성전을 완공하기 위한 노력을 즉시 배가시켰다.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성전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끊임없이 희생하였다. 1890년경 유타주의 풍경 화가인 존 하펠과 로러스 프랫이 대관장단 제1보좌이던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에게 자신들이 유럽에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 교섭해 왔다. 그들은 그 대가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교회 건물 미화 작업을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대관장단은 미술 분야에 잠재력을 보이던 다른 몇 명과 함께 그들을 프랑스 파리로 "미술 선교사업"을 보냈다. 총관리 역원들은 그들이 귀환한 후에 교회 건물 미화 작업만 하기 보다는 성전 의식 참여자들이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성전의 엔다우먼트실에 벽화도 그려 주기를 원했다. 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친숙한 유타주 계곡에 남겨 두고 미지의 프랑스로 세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떠남에 따라 다시 한 번 성약과 희생이 함께 요구되게 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특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적어져 가는 거룩한 기금으로 이 사람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안락한 가정을 기꺼이 떠났던 그 미술 선교사들 중에 페어벵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럽으로의 장도에 오를 준비를 하기 위해 1890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6시에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이 클라드(갓난 아기)와 오르소와 리로이의 볼



에 입맞춤을 했다. 그런 다음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작별의 말을 하였다."고 페어벙크스 형제는 다소 비통한 마음으로 적고 있다. "아내는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우리는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머지 자녀인 어빈과 버넌과 네티와 리오는 나를 따라 기차역까지 걸었다. 기차가 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라탔다. 플랫폼에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을 남겨 두고."

기차는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남쪽의 프로보로 달려갔으며, 페어벙크스 형제는 그곳에서 로러스 프랫을 만났다. 다음 정거장인 유타주 스프링빌에서는 세번째 선교사인 존 하펜이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으로도 성전 건축의 막바지 단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자금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을 충당해 줄 수는 없었다. 미국 정부가 교회와 다툼에서 들인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복수 결혼을 한 가정 가운데 약 15,000여 남성 가장들은 최고 3년까지 감옥 생활을 하거나 최고 2,000불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농업과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연방 정부가 교회 재산의 압류 처분을 완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금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1891년의 국내 경기 침체와 1893년의 불황에다 에드먼즈와 에드먼즈-터커 법안에 따른 교회 재산 압류의 결과로 교회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정이 겹쳐 교회 전체적으로나 회원 개개인으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 1893년에 미국 전체에 "클리브랜드" 불황이 몰아닥쳐 1899년까지 지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4년 만에 600여개의 은행과 15,000여개로 추정되는 사업체가 도산되었으며, 유타주의 경제도 휘청거렸다.

그러나 굽힐 줄 모르는 신앙의 소유자인 우드럽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성전을 완공하는 데 충분한 기금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해 희생했던 이들 가운데에는 여러 시간 동안 인근 농장에서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25센트를 바친 소년이 있었다. "전 그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라고 그는 회고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버지를 찾아 "아빠, 제가 이걸 벌었어요! 다음 번 아빠가 프로보에 가시면 이 돈으로 청바지를 사다 주세요."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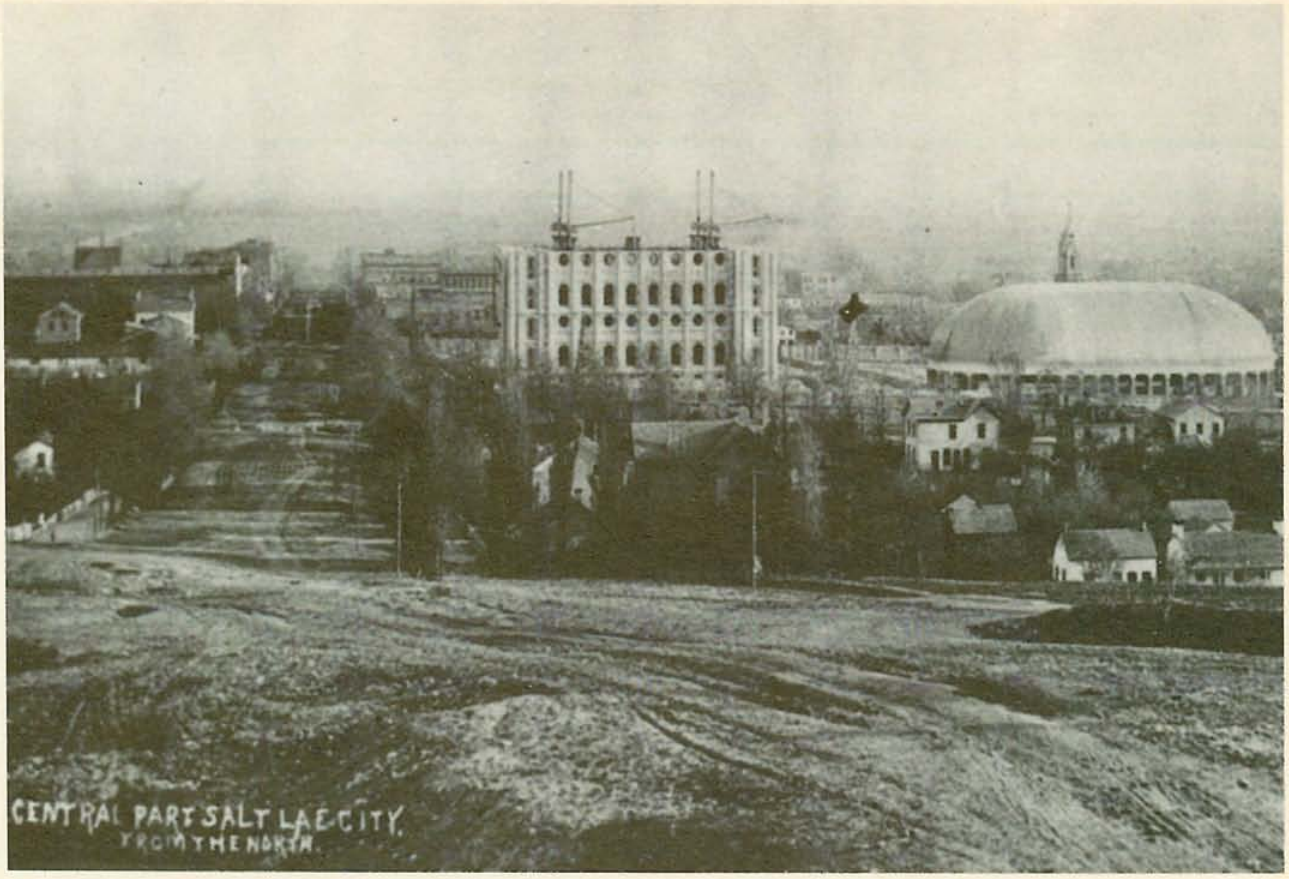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드럽 대관장이 요구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솔트레이크 성전을 짓는 데 이 돈 가운데 10센트가 필요하실 거야. 자, 너에게 별도로 15센트를 줄테니, 나머지 10센트는 감독님에게 갖다 드리자꾸나. 그러면 감독님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보내실 게다."라고 아버지는 부드럽게 제안하였다.

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바친 기금으로 석조 건축 공사는 마지막 돌인 관석이 성전에 놓일 수 있는 시점에까지 완료되었다. 참으로 이 성전의 건축은 역경을 무릅쓰고 신앙과 굳건한 인내로써 이룩한 작업이었다.

"가장 위대한 날"

1892년 4월 6일, 초석이 놓인 지 39년 만에, 성도들은 관석이 놓이게 된 것을 다 함께 기뻐하며 경축하기 위해 모였다. 45년 전, 표시용 말뚝을 쳤던 우드럽 대관장은 이날을 "말일성도들이 이 산에 온 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자신의 일지에 감격에 벅찬 기록을 남겼다.

반연차 대회로 인해 이미 복잡해 있던 그 도시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려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5천 여명이 템플 블럭에 운집하였으며,



화강암을 제자리에 올려 놓기 위해 데릭스(수동식 기중기)가 사용되었다. 1880년대에 찰즈 알 새비지가 촬영한 사진(*위*)에서 보면 최소한 기중기 한

대는 증기 동력 기중기였음을 알 수 있다. *왼쪽*: 마차에서 기계 장치로 나무 상자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그린 영화 *주님의 산*의 한 장면.

지붕이나 창이나 심지어는 전신주에서까지 지켜 보는 사람들도 수천 명에 달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욥기 38:7)할 때 처음의 호산나 함성이 하늘에 울려퍼졌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제의하였다. "우리 모두 이 도시에 있는 집들이 모두 흔들거릴 정도로, 이 도시 어디 있는 사람이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영원한 세상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이 호산나라는 말을 외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정의 순간, 교회 건축가인 조셉 돈 칼로스 영이 성전 꼭대기에서 우드럽 대관장에게 "이제 관석을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하고 외쳤다. 85세의 예언자는 "엄숙함과 고요함에 압도되어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왔다." 우드럽 대관장은 팔을 번쩍 든 뒤,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백성이여, 지상의 열국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브리감 영 대관장이 기초를 놓아 헌납한 곳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의 관석을 놓으려 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런 다음 전기 스위치를 누르자, 고리가 풀려 성전 맨 꼭대기에 있던 돌이 제자리에 놓여졌다. 그런 다음 스노우 장로의 인도 아래 성도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양께! 아멘! 아멘! 아멘!하고 외쳤다. 이 가슴 벅찬 감사의 찬양이 늘어나는 군중 때문에 세 차례나 반복되었으며 성도들은 "호산나"소리와

찰즈 알 새비지가 촬영한 역사적인 사진

1892년 4월 6일, 관석을 놓는 의식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다. (*위*) *오른쪽*: 영화 *주님의 산*의 한 장면.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으로 분장한 배우가 관석을 놓는 스위치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관석은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이 놓인 기반이다.

"아멘" 소리를 외치며 손을 높이 들어 흰 손수건을 흔들었다.

교회 회원인 존 링런은 그 순간 전율을 느꼈다. "수많은 군중들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빙 둘러싼 산으로 메아리쳐 가는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유타주에서 살고 있던 학교 교사로서 비몰몬인 매리 에이치 너팅은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알렸다. "그 우렁찬 소리를 듣는 이들은 특별한 감흥을 느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몰몬이즘은 여전히 거대한 힘을 갖고 있으며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깨달았다."

수많은 회중은 태버내클 합창단의 맑은 소리에 따라 다 함께 교회에서 영혼을 가장 감명시키는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합창했다. 이 찬송가는 56년 전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식에서 처음 불리워졌으며 이후 모든 성전 헌납식에서 불려진 찬송가이다. "청중들이 모두 함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훌륭한 찬송가를 부를 때 나는 지금껏 한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전율을 느꼈다. 그 호산나 외침 소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으며 평생 다시는 들어보지 못할 것 같은 소리였다."고 유타주의 사진사이자 합창단원이었던 찰즈 새비지는 기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프랜시스 엠 라이먼 장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전의 완공을 서두르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시어 이 성전이 1893년 4월 6일에 헌납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제의합니다."라고 했다. 성전 건축

인부였던 존 딘은 그 결과에 대해 "운집한 사람들이" 오른손을 들며 "'예' 하고 고막이 터질 듯한 큰 소리를 외쳤다."고 보고했다.

관석을 놓는 의식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은 남아서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 제막식을 보았다. 유타 태생의 조각가 사이러스 댈린이 도안한 그 상은 두드려서 편 구리로 만들어 22캐럿의 금박을 입힌 것이었다. 땅거미가 지기 전에 그 거대한 동상은 64미터 높이의 동쪽 중앙 뾰족탑의 석조 구 위에 놓여졌다.

그 다음 1년 동안, 목수, 페인트 공, 미장이 및 기타 숙련 기술자들은 성전 내부 공사를 마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다. 성전 내부는 훌륭한 목재와 장식용 석고 조각품, 아름다운 벽화와 그림, 거울, 우아한 커튼과 휘장, 구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카페트와 가구, 훌륭한 조명 기구, 샹들리에 및 특별히 지시하여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 창 등으로 장식되었다. 1893년 4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인 헌납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제 때에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성도들은 휴일에도 일을 하였다. 1892년의 추수 감사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였다."고 한 성도는 기록했다.

물질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나가자 영적인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1893년 3월, 대관장단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반성하고 정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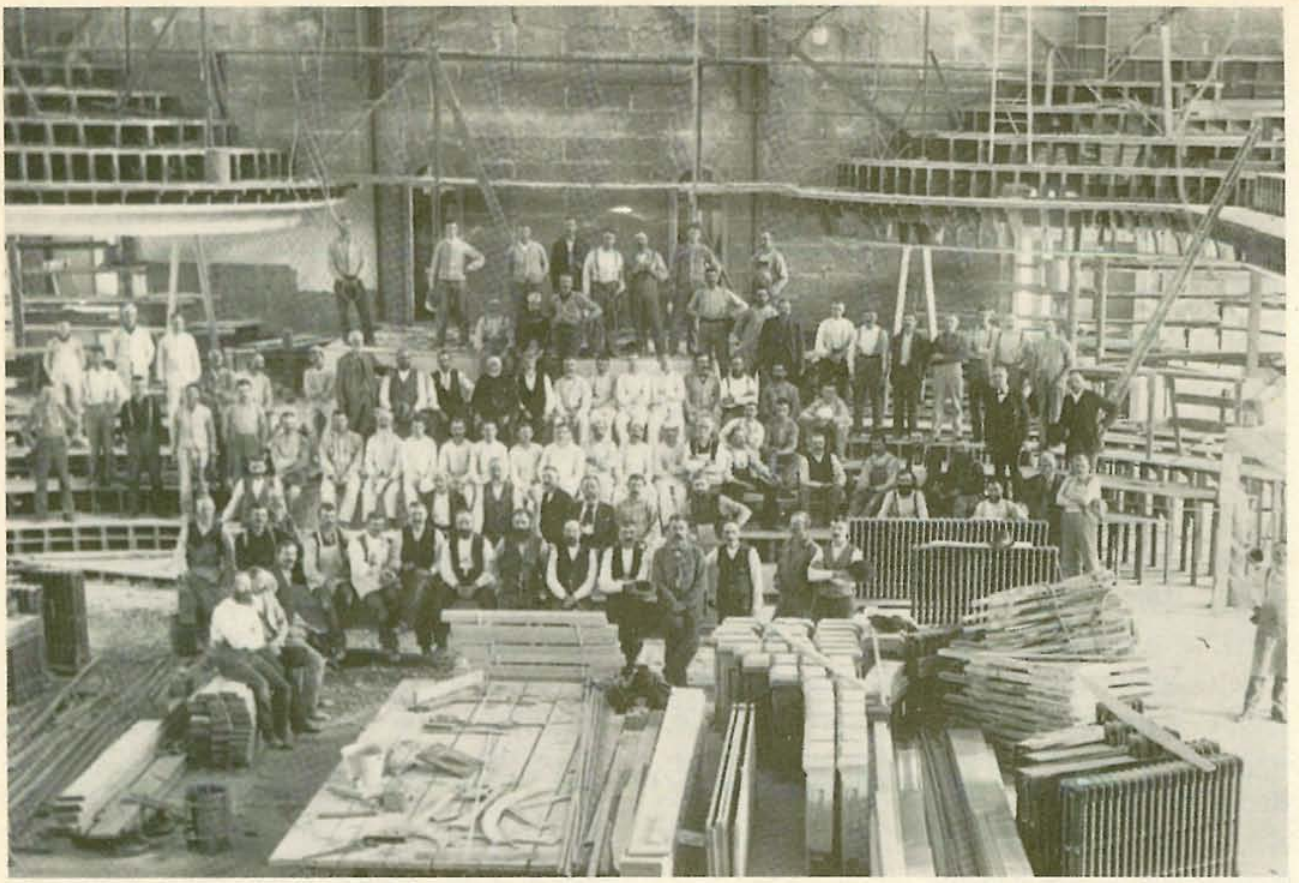
"하나님의 성전을 헌납할 날짜가 임박해 오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모두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합당해야 하며… 건물도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화해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성회를 갖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불친절한 모든 감정을 없애 버려야 하고 다툼을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요소마저 없애 버려야 하며, 그들에게 남아 있는 온갖 나쁜 감정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하며, 또한 용서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영을 지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며, 그러한 영을 지닌 후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며, 서로 상대방에게서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대하고 구하는 용서를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겠습니다…

"이 권고대로 힘써 실천하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의 단합된 노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우리는 1893년 3월 25일 토요일을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주님의 집*, 113~115쪽)

일부 성도들은 1893년 4월 연차 대회가 있기 수주일 전부터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루시 플레이크는 남편과 함께 1893년 3월 8일에 애리조나에서 유타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우리는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 기차를 탈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함께 간 일행으로는] 남편 윌리엄과 나 외에도 레이닝 자매님과 조엘, 존, 헨리 태너와 엠마 태너 부부 및 그 두 분의 자녀 두 명이 있었다."고 루시 플레이크는 자신의 일지에 기록했다. "눈과 진흙탕 위로" 마차를 타고 하는 여행은 "춥고 힘들기 그지 없었다." 마침내 플레이크 가족은 유타주 비버에서 기차를 탔다. 루시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기차를 탔다. 비버시에서 솔트레이크로 함께 가는 친구와 친지들이 매우 많았다. 정류장마다 헌납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올라 합류하였다."

첫번째 헌납식이 있기 전날 저녁, 우드럽 대관장은 처음으로 비회원 초청 인사들에게 성전 내부를 구경하



1892년 4월, 관석을 놓은 후, 성도들과 기술자들은 1년 내에 헌납할 수 있도록 성전 내부 공사를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해 나갔다.

도록 안내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쌓여 있던 적의를 청산하고 비몰몬 이웃들과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기를 염원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딛은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취해 왔던 미연방 임명 유타주 대법원 판사 찰즈 시 제인마저도 도안과 장식과 기술자들의 솜씨의 우수성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성전 공개 행사에 참석한 뒤 "그 건물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일지에 적었다.

"그 집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

1893년 4월 6일 오전, 우드럽 대관장이 성전에 들어옴으로써 마침내 40년간의 노고와 희생의 절정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 신권 지도자의 기록에 의하면 "템플 블럭은 8시 30분에 문을 열었으며, 거리에는 휠씬 전부터 인파가 붐비고 있었다." 2,200 여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성전의 위층에 있는 대형 집회장으로 입장하는데 두 시간이 소요되었다.

태버내클 합장단의 일원이었던 토마스 그리그즈는 오전 8시 20분에 서쪽 문에 도착하였으나, 줄이 너무 길어 "출입구 앞 3미터까지 이르렀을 때의 시각이 오전 9시 55분이었다."라고 기록했다. 그는 또 이렇게 적고 있다.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일고 약간의 비가 내린데다 수위가 '더 이상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입장이 끝나게 되어 대단히 유쾌하지 못했다… 합창단원의 일원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 남서쪽 입구로 곧바로 입장하여 서둘러 들어갔다."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의 예언자가 "두껍고 부드러운 천으로 덮은 발판"에 무릎을 꿇고 마흔 한 차례의 의식에서 계속 낭독하기 위해 손수 준비하여 읽은 헌납 기도였다.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학생이었던 에이미 브라운은 "그것은 내 생애에서 겪은 것 중에 가장 감명깊은 영적인 경험의 하나였다… 눈처럼 흰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

지셨으며, 순결의 정수이시고 관대하시며 신앙심이 깊으신 [우드럽 대관장님]이 사람들 앞에 서신 모습을 보고 나는 고대의 예언자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우드럽 대관장에게 있어서, 그 행사는 곧 꿈의 실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에 살던 약 50년 전, 나는 성도들과 함께 록키 산맥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내가 그 성전을 헌납하는 시현을 보았다."

헌납식을 하는 동안 성도들은 성전에서 영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기록했다. 헌납식에서 공식 속기사로 봉사했던 수자 영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했다. "1893년 4월 초는 폭풍우가 심하여 연일 암흑에 덮인 날이 계속되었다. 짙은 회색빛 하늘이 온통 땅을 덮고 있었다. 매일 비가 내렸으며,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엄청난 위력으로 땅을 휩쓸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환희와 영광의 빛은 그 짙은 암흑을 훨씬 능가하였다."(본 11월호 *성도의 벗*, 44~48쪽 참조)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잡지사 *우먼스 엑스포우넌트 (Woman's Exponent)*의 사설 작가인 애니 캐넌 웰즈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그저 그 성전의 벽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 나는 그들의 일부가 되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생각은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성전의 완공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몹시 갈망해 왔기 때문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헌납식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가장 큰 행사였다. 우리 모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 보아 왔는지 모른다. 또 돌 위에 돌이 놓일 때마다 성전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어지길 비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심은 어떠했던가. 이처럼 아름답게 다 지어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자부심과 행복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수많은 성도들은 성전 헌납을 통해 록키 산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영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의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과 말일에 성전이 "산꼭대기에 굳게 설"것을 본 현대와 고대의 예언자들의 시현을 실현시키는 데 기울였던 희생을 주님이 받아들여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 지도자였던 제이 골든 킴볼 장로는 1915년 연차대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고 희생했던 것을 주제로 말씀했다.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이 성전의 돌 하나 하나가 제게 가르침을 줍니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돌 하나 하나가 설교해 줍니다. 이 성전이 헌납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산상 수훈 이래 가장 위대한 수훈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 모든 뾰족탑,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성전을 지은 이들의 신앙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리차드 나이첼 홀잡펄 작인, 모든 돌들이 가르치고 있다 : 솔트레이크 성전의 건축과 헌납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92년)에 입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설명 및 회고 내용이 몇 가지 추가되었으며 일부 인용문에서는 철자 및 구두점을 표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기사에 대한 주석은 다음 주소를 통해 성도의 벗사로부터 영문으로 구할 수 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솔트레이크 성전의 특징

1893년 헌납식에서 성전의 규모가 발표되었다.(다음 수치는 측량한 근사치이다.)

성전의 길이(동에서 서까지) : 57미터.

성전의 폭 : 30미터.

동쪽 중앙 탑의 높이 : 68미터.

서쪽 중앙 탑의 높이 : 67미터.

벽의 높이 : 51미터.

맨 아래 벽의 두께 : 2.7미터.

맨 위 벽의 두께 : 1.8미터.

기초 벽 : 두께 5미터, 깊이 2.4미터.

건평 : 614평.

성전의 동쪽 면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계된 돌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지구를 상징하는 돌, 달을 상징하는 돌, 태양을 상징하는 돌, 별을 상징하는 돌들이 있다. 지구와 달 및 태양의 무늬는 "영광의 세 등급" 즉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을 상징한다.(고린도전서 15 : 40~42 ; 교리와 성약 76 : 50~112 참조)

동쪽 중앙 탑 위에는 만방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팔을 부는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이 서 있다.(요한계시록 14 : 6)

다른 무늬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의 돌들(열왕기상 8 : 10~11 ; 마태복음 17 : 5 참조)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건립
1853년 4월 6일 착공
1893년 4월 6일 완공

이 글 바로 아래에 있는 창문의 아치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만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시편 33 : 18 ; 잠언 15 : 3 참조) 종석에 새겨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요한계시록 1 : 8 참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래 창문의 아치에 있는 굳게 잡은 손의 무늬는 우정의 손길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성전의 서쪽 면에는 북두칠성으로 알려져 있는 북쪽의 별자리 큰곰자리의 일곱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북두칠성은 북극성에까지 거의 이어진 두 개의 지극성(큰곰자리의 α, β의 두 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무늬는 "길을 잃은 자들이 신권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전체 성전에 둘러 조각되어 있는 50개의 달은 음력의 주기를 나타낸다.

양 옆에 두 개씩, 모두 네 개가 있는 큰 출입구는 폭이 2.5미터이고, 높이가 4.9미터이다. 문은 높이가 3.65미터이고, 문 한쪽의 각 폭은 1.2미터이다. 문 손잡이에는 벌집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주님께 거룩함"(스가랴 14 : 20~21)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문 손잡이를 두르고 있는 장식용 금속판에는 감람 나무의 작은 가지 화환 안에 두 손을 꼭 모은 그림이 새겨진 아아치형의 종석이 있으며 "1853~1893"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

성전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이러한 조각이나 그림들은 성전 의식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가르침의 심도를 더욱 깊이 있게 해준다. 조지 에이 스미스 부대관장은 이렇게 적고 있다. "모든 것이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해의 영광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

귀기울여 듣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자매애를 강화시킴

"오 시온의 자매여 다 함께 일하며"(*찬송가*, 1989년, 198장) 상호부조회를 주제로 한 이 찬송은 우리의 자매애가 상호간의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과 가슴으로 귀기울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신뢰를 받을 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방법을 통해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자매들인 마리아와 엘리사벳, 룻과 나오미가 보여 준 모범처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귀기울이는 것을 배울 수 있음

첫째로, 우리는 열린 가슴과 마음으로 서로에게 귀기울여야 한다. 열심히 귀기울여 들음으로써 우리는 말하는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귀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귀기울여 들을 때, 때때로 이미 들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거나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종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한 자매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그 자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 나단의 철없는 행동으로 난감해 하고 있었다. 아들의 좋지 못한 말버릇과 행동을 올바르게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그녀는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또한 귀기울여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한 친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나단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와 같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였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보인 매일매일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나단

크리스티 모리스 그림

의 행동이 그렇게 되도록 부추겼다는 것과 자신부터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들의 생활 또한 변하게 되었다. 사려깊은 한 친구가 귀기울여 듣고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로 귀기울여 듣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서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느낌과 경험, 그리고 기대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신뢰는 우리가 비밀을 지킬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집집에 돌아다니고…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디모데전서 5:13)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였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 준 비밀을 존중하여 지킬 때, 친구들이 자신들의 내적 느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헤더는 네 아이의 어머니로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다. 마리는 종종 헤더 자매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할 때면 전화를 해야 한다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다. 헤더는 이렇게 말한다. "지는 마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하고 질문을 하면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울면서 설명을 하면, 그녀는 귀기울여 들어 주었고 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마리가 저의 말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마리같이 좋은 친구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러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모사이야서 18:21)대할 수 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자매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

아빌라 형제의 신앙

호세 오헤다

아빌라 형제는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칠레의 산티아고 성전에 있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페트리시오 아빌라 형제는 처음으로 칠레 산티아고 성전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성전에서 그는 시현을 통해 자신이 다니던 지부의 형제 자매들인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았다. 우리는 서부 아르헨티나의 멘도사 스테이크 산하에 있는 오라도 지부의 회원들로 가장 가까운 성전이 칠레의 산티아고 성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빌라 형제는 성전에서 지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시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시현을 우리에게 말하였다. 일부 회원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 소리를 듣고 웃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회원들은 산티아고까지 여행하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였다.

지부장의 지시 아래 아빌라 형제는 곧바로 우리를 돕는 일에 착수하였다. 처음에 그는 모임을 열어 우리의 성전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여행 경비를 모으기 시작하였다.(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모인 기금이 나중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 준비반을 시작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아빌라 형제의 관심과 추진력 덕분에 우리들의 열의도 나날이 커갔다.

여름에 아빌라 형제가 일을 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야만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의 추진이 느슨해지기도 했으나 가을에 그가 마을로 돌아오자 활기를 되찾았다. 성전 준비반이 거의 끝날 즈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지부장인 올란도 마리스 형제와 스테이크 부장인 마틴 보헤스 형제와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접견을 가졌다. 우리는 여행 일정을 3일간으로 계획하여 1992년 4월 16일 목요일을 출발일로 잡았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던 유일한 문제는 버스를 전세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58장의 표를 팔아야 했지만 3주 동안에 고작 우리는 44장밖에 팔지를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나머지 표를 팔 수 없다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고 일부 회원이 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빌라 형제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우리 지부 회원들만으로 표를 소화할 수 없다면 나머지 표를 멘도사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권유해서 팔면 될 것이라고 결정을 하였다. 아빌라 형제와 알레잔드로 수리아노 형제는 스테이크 내의 각 와드와 지부를 방문하여 작은 포스터를 붙이고 회원들에게 우리의 여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자 우리에게는 경전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관심을 보여 빈 좌석이 모두 매진되었다. 새로 여행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스테이크 경계 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프라레 형제 부부는 인근 지역의 아르헨티나 크루즈 스테이크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바다미 형제의 다섯 식구는 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산티아고 델 에스트로 지방에서 왔다.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날 즈음, 여행 준비를 같이 해왔으나 경비가 모자라는 가족이 세 가족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여행 모임을 가질 때 모아 둔 기금에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제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본 후에
아빌라 형제는 지부 가정의 밤 시간에
자신이 느낀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왼쪽*) 성전 여행에
참여한 68명의 회원들, *위쪽*에 일부
회원이 보인다. 버스가 안데스 산맥을
굽이 돌며 가는 동안 사랑의 영이
이들 일행에게 있었다. *오른쪽*.

사진 촬영: 호세 오헤다

여행 전날, 일행 모두가 집회소에 모여 특별 가정의 밤을 가졌다. 모임이 끝나고 멀리서 살고 있는 가족은 버스가 출발하는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집회소에서 밤을 보냈다. 일찍 출발을 해야 칠레 국경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사랑과 형제애로 가득 차 있었다. 음식과 음료수를 온정 속에 나누어 먹었으며, 각 가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었으며, 찬송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종종 창밖을 내다보며 웅장한 안데스 산맥을 보고 경탄하였다. 눈덮인 산봉우리와 협곡과 시냇물을 지나가는 꾸불꾸불한 도로를 따라 가면서 우리는 그림에나 나올 법한 마을들을 스쳐 갔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칠레 국경을 통과한 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성전의 뾰족탑에 있는 천사 모로나이상을 보았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기쁨으로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모로나이가 부는 나팔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성전 봉사자들이 마중나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그들이 우리가 칠레 성도들의 집에서 민박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 우리는 곧바로 우리가 묵을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다음날 있을 특별 성전 의식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정말 단순히 말로는 그 거룩한 장소에 깃든 영을 결코 표현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영이 임재한 가운데 예비 의식과 엔다우먼트, 결혼과 가족 인봉 및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집행되었다.

우리는 정말 우리보다 먼저 성전에 다녀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리라고 한 그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패트리시오 아빌라

알바 데 카발레로

마리스 가족

아말리아 데 오헤다

델핀 데 라 크루즈 벨로

사진 촬영: 네스토르 쿠레벨로

회상 및 간증

다음은 함께 성전 여행에 참여하였던 몇몇 회원들의 이야기이다.

패트리시오 아빌라: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과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방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창조주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알바 데 카발레로: "제가 부모님에게 인봉되고 또 이미 돌아가신 다른 가족들에게 인봉된 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스 가족: "우리는 형제애와 호의 및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주는 커다란 영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도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찾도록 권유드립니다."

아말리아 데 오헤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델핀 데 라 크루즈 벨로: "저는

과는 달리 그 놀라웠던 하루는 저물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을 기약하고 우리가 묵고 있는 칠레 성도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다음날이 부활절 전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칠레 전역에서 온 많은 회원들이 성전을 방문하였다. 숙소가 먼 곳에 있었던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올 수가 없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적지 않이 실망을 하였지만 주어진 상황을 불평없이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가정의 밤 모임을 열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첫번째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였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일행이 모두 주님의 집에 모여 참여한 성전 의식은 참으로 기쁨과 영성이 넘친 의식이었다. 이번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스런 의식을 집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봉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의식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만, 버스가 고장을 일으켜 우리는 버스가 수리되는 토요일 밤까지 산티아고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전화 위복이 되어 우리는 다시 일행 모두가 함께 가정의 밤 모임을 가졌으며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간증을 나누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일요일 드디어 시온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버스가 우리들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다. 깨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잠든 사람들까지도 지나간 며칠 동안의 시간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의 집회소에 도착하여 주님의 명에 따라 성찬식을 가졌다.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얼마나 학수 고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여 아빌라 형제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알베르토 리산드렐로

에딜리아 베르토라니

로하스 가족

호세 바다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 "저의 영을 키우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과 같은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간증과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로 묶고 이를 이용하여 지부의 다른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베르토 리산드렐로 :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새로운 간증을 마음속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에딜리아 베르토라니 :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와 인봉을 하는 동안 저는 그분들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가신 분들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하스 가족 : "이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세 바다미 :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선한 영을 느꼈으며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좋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빌라 형제님을 비롯하여 이 성전 여행을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

성 전 이 우 리 를 어 떻 게

프란세스 더블류 핫슨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축복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편과 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니는 영원한 측면을 생각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곤 한다.

우리 자녀들의 나이는 큰 아이가 30세, 막내 아이가 18세로 아이들마다 성격과 관심 거리도 각양 각색이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의 영적인 발전 수준 또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 온 표준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부모로서 우리도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이 있었으며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였다. 많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이라는 축복된 목표들을 향해 쉽게 가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그러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도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하였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중대한 잘못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에 관한 책들을 살펴도 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가정의 밤을 거르지 않고 가졌다. 우리는 또 정규적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괴롭혔다.

그때에 우리는 아이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려고 할 때,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축복이 되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 특별한 축복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님의 집을 방문하는 특권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활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특정한 문제를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삼 단계로 된 절차를 따랐다. 첫 단계는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며, 둘째는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의 성전 방문을 성별하는 것이었다.

준비는 전날 밤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날 동안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성전에 가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또 합당한 생각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간구하였다.

일단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도 명부 위에 놓았다. 적당한 곳에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 명상하였다. 또 기도에 참여할 기회가 오면 우리는 교회의 다른 충실한 회원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의식이 끝나도 한 단계를 더해야 했다. 성전이 주는 영을 안고 평화롭고 고요한 저녁에 우리는 우리 둘만이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 우리의 성전 방문을 기도로 성별하였다. 함께 기도할 때 성신께서 목적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으며, 항상 기도를 마칠 때면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금식과 기도 그리고 성전 예배로 이루어지는 삼 단계의 절정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아들과 딸을 위한 간구로 정말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순간에 임재하는 달콤한 영은 우리가 행하는 것 이상으로 하

도울 수 있는가

**사탄이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권세를 휘두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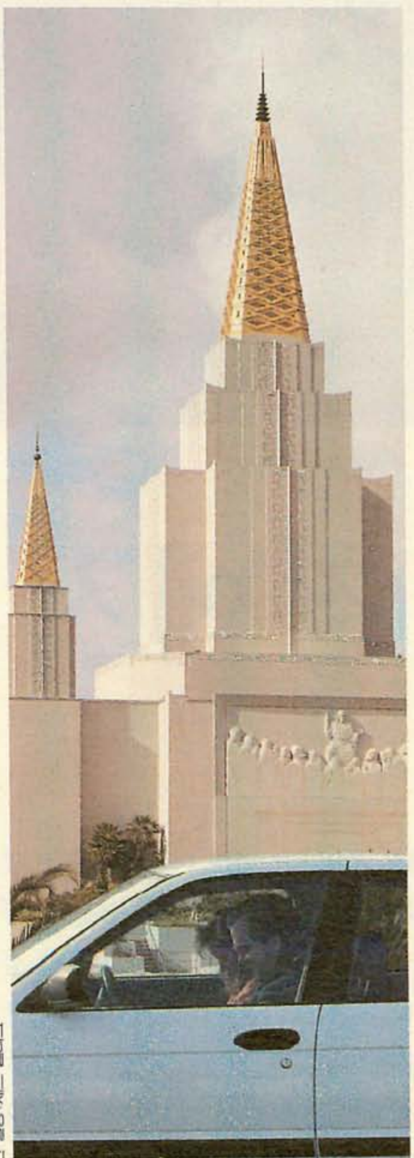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늘의 힘과 교통하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었다.

때때로 응답이 명확한 방법으로 빠르게 올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에 따라 행하였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어떠한 장엄하거나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시현 같은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때때로 응답은 아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한번은 대학에 다니는 딸아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성전을 방문한 다음날 와드 감독님이 방문하여 우리와 함께 방문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은 삼 일 동안을 매일같이 방문하셨다. 부모로서 이 훌륭한 감독님이 딸아이를 위로하고 인도하기 위해 했던 것 이상으로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도 있다.

선교사로 나갈 연령이 지났으나 간증이 부족하여 고통받았던 아들을 위해 우리는 특별히 성전을 여러 번 방문하였다. 방문을 할 때마다 아들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더니 곧 불같은 간증이 일어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가족 중의 다른 아이들도 축복을 많이 받았다.

성전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이 자녀를 축복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복잡한 고용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성전으로 주님께 가져 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남편을 축복하셔서 그의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성구를 영감으로 주셨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전을 펼쳐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를 찾고는 기뻐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경전을 생활에 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니고 있는 성구를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주님의 영은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규칙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성스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이러한 원리를 배울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악이 만연하고 사탄이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권세를 휘두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족들을 돌보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성전이 주는 보호와 위로를 구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제이 엠 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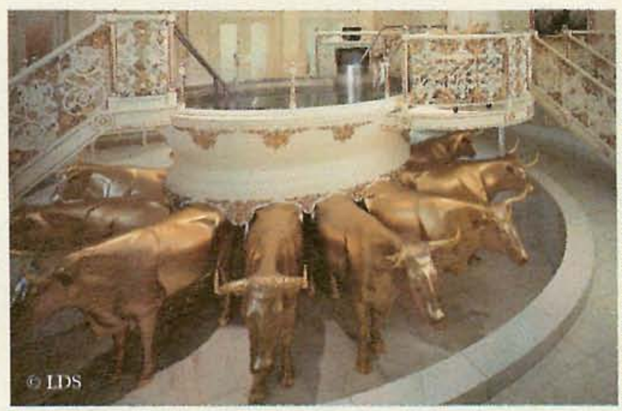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가르침과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결심들이 상세히 가르쳐지고 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는 이러한 가르침과 의식들이 성전 내의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침례반에서는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조와 에덴 동산, 현세 및 해의 왕국의 상태 등이 그려진 방에서는 엔다우먼트가 집행되고 있다. 아름다운 가구가 놓여져 있는 해의 왕국실은 충실한 사람들이 가게 될 고귀한 승영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 인봉 의식과 부모에 대한 자녀 인봉 의식을 위한 방이 12개가 있다. 그리고

사진 촬영 : 웰든 앤더슨,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 재인쇄 금지

솔트레이크 성전에는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관리 신권 정원회가 사용하는 회의실들과 모임을 위한 커다란 집회실이 하나 있다.

위쪽 : **창조실**, *오른쪽 :* **침례반.** *데이비드 오 매케이 대관장은 성전에서 "영생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볼 수 있다."고 말씀했다. 성전에서 받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배우게 된다.*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재인쇄 금지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 재인쇄 금지

© LDS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 재인쇄 금지

왼쪽 : **에덴 동산실,** *위쪽 :* **아랫쪽 그랜드 홀웨이.** *성전에서 받는 가르침과 의식은 영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어 참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희생 곧 나 주가 명한 모든 희생을 바쳐 이로써 언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교리와 성약 97:8) 주님의 참다운 제자를 위한 것이다.*

또한 성전에서는 산 사람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에 의해 성약이 맺어지고 있다.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수행하는 대리 성전 봉사를 영의 세계에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을 위해 성전에서 가르침과 의식을 받은 후에 교회 회원들은 종종 성전을 다시 방문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해 같은 의식을 받도록 권유받는다.

위쪽 : **현세실,** *오른쪽 :* **윗쪽 그랜드 홀웨이,** *맨 오른쪽 :* **달의 왕국실.** *성전은 우리들이 경건한 봉사와 영적인 재충전, 명상,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주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 집중할 때, 종종 자신의 이해력이 밝아지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계시되기도 한다. 주님은 그분의 집을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리와 성약 88 : 119)으로 표현하셨다.*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재인쇄 금지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재인쇄 금지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재인쇄 금지

왼쪽: **해의 왕국실,** *위쪽:* **성전 인봉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말일성도들도 성전을 성별된 장소,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 성전을 감도는 영적인 분위기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성품과 그곳에서 주어지는 가르침과 의식의 본질에 의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재인쇄 금지

왼쪽 위 :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실,** *오른쪽 위* : **십이사도 평의회실,** *왼쪽 아래* : **칠십인 회장단 평의회실,** *오른쪽 아래* : **성전 인봉실,** *맞은편* : **어셈블리 룸**

말일성도들은 성전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었던 신성한 계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 있으며,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성전에서 받는 가르침과 의식이 이 말일에 회복되었다: "나는 이 집에 관한 모든 일과 그 집에 관한 신권…나의 종 요셉에게 보여 주리라."(교리와 성약 124:42)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자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에서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 기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목소리와 환희에 찬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에 올라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라,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가멜산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저들에게 내려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또 말일성도로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께서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교리와 성약 128:19, 24). □

AARONIC
PRIESTHOOD

"하나님의 권세가

러렌 곤트

미첼 하인즈 그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함으로써 자신이 거의 50여년 전에 꾼 꿈을 성취하였다.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셨다.

1893년 4월 6일 아침,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남서쪽 문을 통해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들어와 4층으로 올라갔다. 오전 10시에 2,5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흔 한 번의 헌납식 가운데 첫번째 헌납식이 시작되었다. 이 헌납식은 성전 건축에 쏟은 사십년간의 희생과 노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연이어 열린 다른 헌납식에서 회중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첫번째 헌납식에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군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만일 회중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었다면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 브리감 영과 존 테일러, 이 밖에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및 다른 주님의 거룩한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이 받아들인 이 건물 내에서 함께 기뻐하였으며, 호산나라는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자" 그들도 동참하여 한 소리로 외쳤다.

1871년에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성전이 완성되면 "성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선하심의 시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정말 그 권세와 시현이 있었다.

첫번째 성전 헌납식

헌납식이 있던 첫날에는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루시 플레이크 자매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악마가 아우성치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정말 악마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솔트레이크시에 일찌기 이처럼 심한 폭풍과 바람이 불고 비와 눈이 내렸던 적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집과 나무가 날라가 버렸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성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수 시간이나 눈 속에 서 있었다."

밖에는 하루 종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나, 성전 안의 어셈블리 룸에는 평화와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에는 대관장단인 윌포드 우드럽, 조지 큐 캐넌,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헌납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전의 4층에 있던 그 방이 지닌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지붕의 높이가 11미터나 되었으며 흰색과 금색으로 나무의 가장자리를 처리한 뛰어난 목공

우리와 함께 하시니"

술, 사방의 네 구석에 하나씩 있는 나선형 계단, 빨간 벨벳이 덮인 연단이 길이 36.5미터의 방 양쪽에 줄이어 있었는데 동쪽에는 멜기세덱 신권을 나타내는 연단이, 그리고 서쪽에는 아론 신권을 나타내는 연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신권 지도자들은 연단 뒤에 역시 빨간 천이 덮인 하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회원들은 양쪽 연단 사이의 탁 트인 넓은 공간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방에는 영이 강하게 임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하나가 되는 것과 영적인 청결을 마음속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1893년 3월 18일에 특별 금식일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툼을 그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랜시스 엠 라이만 장로는 이에 대해 "교회를 인도하는 신권 평의회에 그처럼 완전한 하나됨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 회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눈을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돌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헌납식에 집중되었을 때" 이와 비슷한 하나됨을 느꼈다.

"영혼을 위한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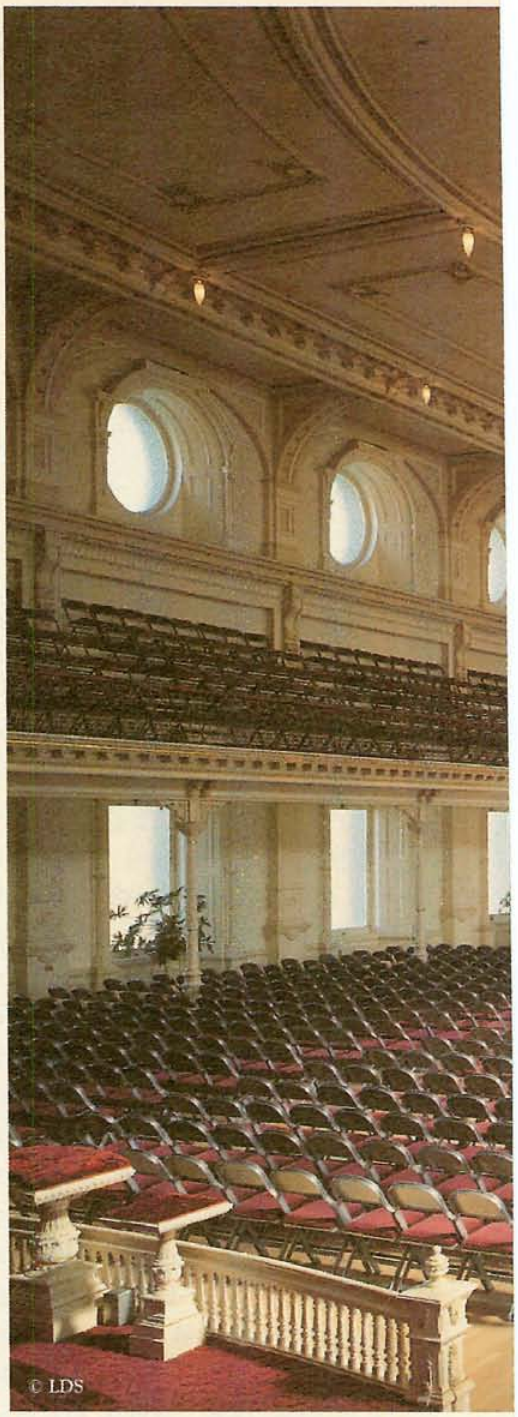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형제들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매들로 구성된 삼백 명의 합창단이 헌납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따라 말일성도 작곡가들이 헌납에 맞추어 만든 찬송가를 불렀다. 애니 웰즈 캐넌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들 중의 어느 누구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지닌 음악가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가사만 들어도 감미롭고 아름다웠지만 음악이 어우러져 더욱 멋있었다. 가장 완벽한 연주가 인간의 영혼을 위한 향연을 연출하였다."

합창 단원이었던 바델라 에스 커티스 형제는 "필멸의 세계와 높은 하늘 사이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며 역시 합창 단원인 찰스 알 새비지 형제는 "나의 영혼이 평화로 가득하였으며, 나의 품성에 만족감이 넘쳤다.… 내가 성전에 있는 동안 이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였다.

헌납식의 공식 속기사로 첫번째 헌납식에 참석하였던 수자 영 게이츠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동쪽 연단 아래쪽에 있는 기록석에 앉아 있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시작할 즈음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발산되어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밖에 있는 구름이 걷혀 한 줄기 빛이 부대관장님의 머리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놀랍게도 도시를 두텁게 가리고 있던 검은 구름 가운데는 빛이 들어올 만한 틈이 조금도 없었다. 어디에고 희미한 빛조차 없었다… 스미스 부대관장님의 얼굴을 비추었던 빛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실제로 성령이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의 얼굴에 임하였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일을 내 생애 중 가장 성스러운 경험으로 길이 간직하고 싶다."

게이츠 자매 혼자만이 스미스 부대관장을 둘러쌌던 빛에 대해 증거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방의 반대편에 앉아 있던 한 장로도 심히 찬란하게 빛나는 노란색 아니 엷은 황금색 빛이 말씀을 하는 스미스 부대관장의 주위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대관장단에 계시는 세 분의 말씀이 끝나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화려한 천이 덮인 단"에 무릎을 꿇고 헌납 기도를 드렸다. 당시 86세의 연세로 35분간이나 기도를 드렸던 대관장님에 대해 데이비드 존은 "대관장님께서 마치 50살이 된 사람처럼 안경도 끼지 않으시고 막힘이 없이 힘차게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기록하였다. 거의 50여년 전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자신에게 성전의 열쇠를 주며



어셈블리 룸의 한쪽 끝에는 대신권 회장단을 위한 자리가 있었으며 다른 한 끝에는 아론 신권 회장단의 자리가 있다.

가서 성전을 헌납하라고 말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다. 바로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헌납 기도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나와 전통적인 "호산나 제창" 순서로 회중을 인도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신들의 머리 위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호산나"를 세 번 외쳤다. 이 호산나 제창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였으며, 그 소리가 웅장한 건물 내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라고 에밀린 비 웰즈 자매는 기록하였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으며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성전의 모든 곳은 영광스러웠고 정결하였다."

어셈블리 룸에 서 있던 성도들은 찬송을 불렀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충만하여 말일의 영광이 내림하누나. 옛날의 시현과 축복 회복되오며 천사들도 세상 다시 찾아 주네."(*찬송가*, 1985, 31장).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을 마저 부를 수가 없었다.

계속되는 하늘의 시현

이후에 있었던 다른 헌납식에서도 이러한 영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합당한 많은 회원들이 헌납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2주에 걸쳐 마흔 한 번의 헌납식이 있었다. 연인원 75,000명이 넘는 사람이 헌납식에 참석하였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훗날까지 그들이 경험한 강력한 영적인 느낌을 깊이 간직하였다.

예를 들면 1893년 4월 17일 월요일, 합창 단원이었던 앤드류 스미스 이세는 캐넌 부대관장이 헌납 기도를 할 때 시현을 본 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저는 밝은 빛이 캐넌 부대관장의 머리 위와 어깨 뒤편 위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있더니 점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빛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거기서 눈을 떼었습니다.… 다음에 저는 존 테일러 대관장을 보았습니다. 또 하이람 스미스라고 생각되는 분을 보았으며… 한 눈에 올슨 프랫도 알아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성스러운 호산나 제창이 있기 바로 전과 제창을 하는 동안에 나는 여러 형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밝은 빛으로 된 둥근 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동안 머리를 숙인 저는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를 들자 저는 다시 연단에 앉아 계시는 대관장단의 세 분의 머리 위에 있는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연사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동안 그분들이 몸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지 그 빛은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던 열한 살난 조지 멍크는 "성전 어셈블리 룸의 동남쪽으로 난 둥근 창문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조지가 어머니에게 이를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자기는 그 사람

사진 촬영: 웰든 앤더슨.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재인쇄 금지

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조지는 깜짝 놀랐다.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그 방의 윗부분에서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 천사와 그 큰 방으로 들어와 둥근 창문 아래쪽 벽을 따라 줄지어 있는 커다란 회랑에서 다른 다섯 천사"를 보았다. 조지는 그들을 자기가 이제까지 본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폐회 기도가 있기 바로 전에 그는 "엄마, 시계 아래에 있는 저 사람 좀 봐요.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멋있어요. 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치켜들고 있어요."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두 손을 치켜들어 어머니에게 보여 주었다. 조지는 모두 아홉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모두 "늘어진 하얀 성의"를 입었으며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천사가 길고 조금 구불거리는 머리"를 하였다고 묘사하였다.

한스 젠슨 할스도 이와 비슷한 하늘의 시현을 보고 이를 자신의 일지에 기록하였다. "나는 가족 및 우리 와드의 이백 명의 회원과 함께 헌납식에 참석할 특권을 가졌는데 정말 감격적인 시간들이었다. [교회] 총

관리 역원으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남동쪽 창문을 통해 들어와 구석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두 천사가 커다란 방에서 사람들 머리 위로 돌아다니다가 북쪽 창문을 통해 빠져 나갔다."

성전 밖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성전을 둘러싸고 마치 지성을 지닌 존재처럼 성전을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많은 회원들이 헌납식이 끝나고 성전을 떠날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토마스 슬레이트 형제는 "이 천상의 느낌이 완전히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고 기록했다. 많은 회원들이 같은 심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간증을 나누고 일지에 경험을 가득히 채웠다.

슬레이트 형제는 4월 7일 헌납 기도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도문을 읽는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겸손한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엘로힘께 드렸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이 나를 뒤덮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루드거 클로슨 장로가 아내 리디아와 함께 4월 8일 저녁 성전 헌납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리디아는 "방의 남동쪽 구석에서 들리는 듯한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 아내는 그곳에 합창단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물론 그곳에 합창단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내는 노래 소리를 두 번 들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열 한 살난 앨리스 미네르바 리차즈는 4월 7일 모임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들어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으며…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앨리스는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에게 그 경험을 들려주었다.

다른 회원들은 회개에 대해 결심을 새롭게 하고 성전 헌납식장을 떠났다. 무절제한 행동을 하였던 한 소년은 "우드럽 대관장의 머리 주위에 있던 밝은 둥근 원"을 보고는 "성전이 주는 영이 너무도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 일종의 오순절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주님은 나의 깊은 속, 곧 내 자신을 보여 주셨으며 그곳에서 나는 정제되지 않은 왜곡된 얼룩들을 발견하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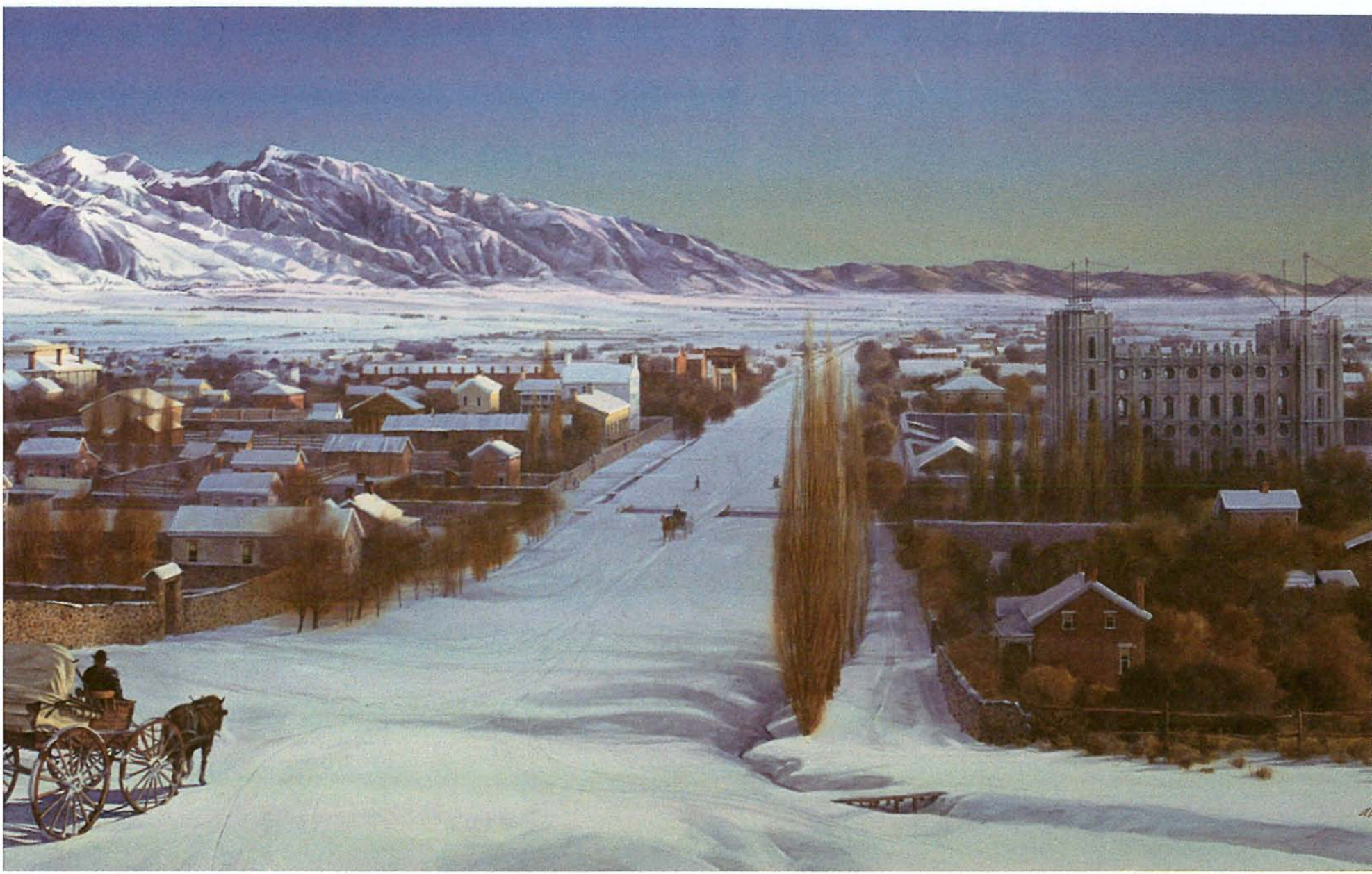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장소"

1893년 4월 있었던 솔트레이크 성전의 헌납은 참으로 정결의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었다. 복천년까지 서 있도록 세워진 이 위대한 성전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 건축에 소요된 40년 동안 시간과 금전 및 재능의 희생을 요구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희생의 대가로 초기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헌납식이 있던 주간의 성전에 대해 애니 웰즈 캐넌 자매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장소가 천사들이 머물러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며,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

글쓴 이는 이 기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 준 리차드 엔 홀잡펄 형제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기사의 각주는 다음의 주소에서 영문으로 얻을 수 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 S. A.



1885년, 메인 스트리트에서 본 모습, 앨 로운즈 작
화가 앨 로운즈는 이 작품을 통해 솔트레이크 성전(*오른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눈덮인 와사치 산(*왼쪽*)이 도시의 동쪽 경계를 이루며 서 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100년 동안 미의 창조물, 힘의 상징, 화평의 안식처, 계시의 장소 및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어 왔다. 이번 호에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건축 및 그 헌납 등 성전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